



제목	중아시아 민족 정체성과 이슬람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양대학교출판부
발행일	2012. 12. 20.
저자	정세진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27
ISBN 또는 ISSN	978-8972184225

내용 요약

이 책은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이며 다양한 종교(조로아스터교, 불교, 이슬람교 등)가 공존하는 지역인 중앙아시아의 민족 정체성과 이슬람을 연구한 책이다. 이 책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 이슬람 원리주의,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의 통치전략으로서의 이슬람 정책 등을 규명함으로써, 중앙 아시아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종교요 삶 자체인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 투르크 민족의 전통 문화, 정주 문화와 유목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저자는 이슬람을 중앙아시아의 민족 정체성의 결정적 요소라고 본다. 중앙 아시아인들에게 이슬람은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1991년 독립 이후 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을 매우 강조했다. 민족 정체성은 소비에트에서 벗어난 자주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이라는 표제 하에 세부항목으로 중앙아시아의 역사 및 지정학,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 우즈베크-카자흐 민족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이라는 제목 하에 중앙아시아 이슬람을 개관하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아랍의 이슬람 원리주의를 고찰하며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의 단체와 이념을 소개하고 있다.